

자연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이타적 유전자

손필영
시인·국민대 교수



따갑게 내리쬐던 햇살도 처서가 지나면 서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다. 어느 사이 벼도 물이 들어 노릇한 기운이 돈다. 분단된 좁은 땅에 의지할 것도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 그나마 사계절이 있어 다행이다. 지난주에는 폭염 속에 황해도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강화 교통도에 갔었다. 철책 너머 바닷가 모랫길 끝에 보이는 연백평야를 바라보면서 지난 8일에 남하한 북한 주민이 넘어왔을 길을 생각해 보았다. 목숨을 걸고 물이 빠진 썰물을 이용해서 건너온 것일 게다. 그는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혼자 내려온 것일까? 필자가 아는 탈북민 중 한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는데, 그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처형당하고 자신을 보증해준 사람들이 화를 당했을 것이라며 언제나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듯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보이는 북쪽 하늘.

뉴스시스

도 문제이지만 감시와 처형이 시스템화되어 사람이 타고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문제이다. 탈북민들이 날려 보낸 풍선에 들어있던 USB를 주워 드라마를 보았다고 중학생 30여 명이 지난 7월 공개 처형됐다. 6월에도 17살 안팎의 청소년들이 비슷한 이유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적대국의 녹화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처벌해 왔지만 호기심

많은 사춘기 아이들의 총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의 부모들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상황을 겪는다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북한에서는 타고난 본성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계절의 변화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사춘기의 호기심처럼, 부모와 자식의 사랑처럼, 아무리 억압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통계상의 북한 인구 2580만 명 중 80세

를 넘긴 6000명 정도를 제외한 사람들은 한번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나 감시와 통제와 억압만을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획일화된 교육과 감시 속에서 성장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었다. 즉 북한 사회의 기반은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아온 가족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물론 가족이 해체될 정도로 폭압이 가해지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 있기에 부모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은 부모에 기대는 본능에 의해 체제가 존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억압을 가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다. 북한의 청소년 처형은 분명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춘기만의 특별한 감수성과 감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성장의 필수적인 정서다. 김영랑의 시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은 사춘기의 설렘을 드러낸다. "내 마음의 어딘가 한쪽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도쳐 오르는 아침날빛이 빨갛힌 은결을 도도네/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마음이 도르도르 숨어 있는 곳/내

마음의 어딘가 한쪽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어딘지 방향은 모르겠지만 마음이 끝없이 설렘에 흘렀던 사춘기를 성인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억압한다고 막을 수 없다. 특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동경이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금지와 억압을 통한 청소년 통제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청소년 사형이 당장은 공포 통치의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청소년기의 불같은 마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이용악이 쓴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에는 "너의 가슴은 열렸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가 믿었던 자연의 법칙처럼 쫓겨난 두만강 줄기가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역사는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는 독립을 했다. 자연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의 분단의 역사도 머지않아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갈 것을 믿는다.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 :브랜드 공연 만들기

기고

김병한

한국공공정책연구소(주) 선임연구원



지난 7월 20일 토요일 저녁 여수푸레할 무렵, 영암읍 달마지복지센터 앞 주차장은 공연장으로 변했다. 영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등 수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약 1시간 30분 동안 월출산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음악에 취했다. 이날 공연의 타이틀은 '월출산 아래 콘서트, 달 뜬 밤에'였고, 초대가수는 신촌 블루스 출신의 보컬리스트 '강허달림'이었다. 강허달림은 이날 공연을 위해 멀리 제주에서 와서 영암에서 하룻밤 자고 공연을 준비했다.

오전부터 이날 공연의 기획을 맡은 영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김창현 센터장과 함께 땀을 흘리며 어둑해질 무렵의 공연장을 아름답게 수놓을 야외용 전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전등선을 매달게 될 강철 와이어는 이미 공연 전날부터 공연을 함께 준비한 위드석봉협동조합의 이훈 대표와 함께 작업을 해냈다. 오후 2시경부터 음향을 체크하기 시작했고, 약 3시경부터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이날 반주자로 참여한 재즈피아니스트 민경인의 리허설은 그날 공연의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민경인은 가수 이은미가 가장 즐겨 찾고 아끼는 피아니스트였고 본인의 앨범도 발매한 뮤지션이었다. 물론 음악을 잘 모르는 필자 입장에서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민경인이 누구야?"라는 생각을 언뜻 했

을 뿐이다. 하지만 현장 리허설에서 그의 연주는 평소 여러 음악을 즐겨듣는 편인 필자에게 마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한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마치 그가 내 귀에 대고 "내가 민경인이다!"라고 소리치는 듯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의 충격적 경험의 배경이 민경인이라는 개인의 음악적 역량인지, 재즈라는 장르의 매력인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면 품질 좋은 악기와 스피커를 동원한 라이브의 힘인지 또는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리허설이 끝나고 한참동안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았다. 본격적인 공연은 오후 7시부터 브리앙트의 오픈링 무대로 시작되었다. 브리앙트는 관객들로부터 앵콜을 요청받았지만 아쉽게도 프로그램 진행상 어려움이 있었다. 강허달림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민경

인의 피아노 연주와 최진배의 콘트라베이스 연주, 조규원의 드럼 연주가 어우러진 여름밤에 어울리는 '썸 타임'과 '대니 보이'라는 재즈명곡이 울려 퍼졌다. 저 멀리 월출산과 해저무는 저녁 노을이 배경이 되어주며 공기마저 아름답게 만드는 연주가 영암읍 한가운데 달마지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흘러 넘쳤다. 연주자들이 두 곡을 연주하고 나니 강허달림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평소 바지를 즐겨입는 강허달림이 이날 공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의상이었다. 첫곡 '괜찮아요 블루스'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괜찮아요'라며 무심한 듯 반복하지만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는 가사와 약간의 낯설고 묘한 매력적인 보컬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는 느낌을 받았다. 두 번째 곡 '한번쯤은 좀 어때'에서는

유쾌한 가사 내용에 나도 모르게 빙긋 웃음이 나오면서도 무대에 빨려들어가는 듯했다. 세 번째 곡 '그러면 돼'부터는 환호하는 관객들과 무대가 하나되는 듯한 경험을 했다. 강허달림의 목소리에는 무엇이라고 정확히 꼭 짚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강력한 흡인력 같은 게 있었다. 필자는 이번 공연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 전남의 시·군마다 지역적인 특색을 갖추면서도 대중적으로 어필할 만한 요소를 찾아서 정기적인 브랜드 공연을 만든다면 어떨까? 영암은 월출산이라는 빼어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월출산 아래 콘서트, 달 뜬 밤에' 공연은 이런 자연 자원을 관광자원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시도였다고 감히 평가해 본다. 이처럼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역문화관광이 활성화되어 '울만하고 살만한 우리 지역'을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